

한국인의 행복과 福 : 유사점과 차이점

이지선 김민영 서은국
 연세대학교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서양의 행복과 유사한 복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에 대해 234명의 한국의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건강'과 '낙관적 성격'과 같은 필수적인 조건은 행복과 복의 공통적 특징으로 나타났다. 두 개념의 차이점 역시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행복을 '자기만족'과 같은 내적 상태와 관련지어 생각하고 복을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적 조건과 관련되어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16%가 궁극적으로 복을 추구하고자 하였는데 이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집단에 비해 행복의 결정권이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 요인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행복 결정에 있어 자기 영향력이 적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행복 결정에 있어 자기 영향력이 크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긍정적 내적 상태의 사람이 더욱 행복할 것이라 예측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요어 : 행복, 복, 주관적 안녕감, 문화

행복에 관한 연구의 기본적인 전제 중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서양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행복은 'summum bonum'이라 정의 내렸고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라 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 등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행복을 정의 내리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제레미 벤담과 같은 사상가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피력하였다. 고대 서양철학 뿐 아니라 문학에서도 행복추구는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데 벨기에의 작가 마테를링크의 동화극 '과랑새'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Wilson(1967)이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주제를 통해 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후 서양의 많

은 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대전제 아래 많은 연구를 해왔다. 그러나 과연 심리학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주관적 안녕감이란 개념이 한국인들의 행복을 이해하는 데 충분할까?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심리학에서는 행복이란 모호한 개념 대신 측정 가능한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정서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 SWB)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Argyle, 2001). SWB와 관련한 연구의 효시라 할 수 있는 Wilson(1967)은 당시의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행복한 사람을 '성과 지능에 관계없이 젊고, 건강하고, 교육받고, 돈이 많고, 외향적이며, 걱정 없고, 낙관

이지선, 김민영, 서은국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소속되어 있음.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03-D00446).
 교신저자 : 이지선,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문과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 2123-2446,
 E-mail : ljjsun@yonsei.ac.kr

적이고, 종교를 가지고 결혼한 사람'이라고 결론지었다. Diener 등(Diener, Suh, Lucas & Smith 1999)은 SWB 연구를 통해 행복에 대한 Wilson의 결론을 재검증 하였는데, 그 결과 객관적인 건강이나 소득의 증가 혹은 교육 수준과 같이 객관적이고 단일한 변인들로는 SWB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며,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요인보다 성격, 적응 등 다른 내적이고 심리학적 요인들이 중요할 것이라 하였다. 실제로 Diener와 Fujita(1995)의 연구를 보면, 긍정적인 정서와 삶의 만족도는 여러 사회적 자원들과 복합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가졌다. 또, 최근 연구에서도 주관적 안녕감에 있어서 돈으로 대표되는 외적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 상태가 더 큰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Diener & Seligman, 2004).

문화차 연구

Bruner(1990)는 어떠한 한 개념의 의미는 문화라는 틀 안에서 조형된다고 하였다. 특히 행복은 정서와 삶의 만족도가 혼합되는 과정에서 문화의 영향을 받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서양 중심적 연구들을 동양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였기에 문화와 관련된 주관적 안녕감 연구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의 SWB와 관련된 문화차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문화차에 대한 기술적이고 표면적인 차이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이 있다.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을 조사한 결과 가난한 나라일수록 돈이 SWB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주의 국가들이 집단주의 국가들보다 더 높은 SWB를 보고 하였다(Diener, Suh, Smith & Shao, 1995). 이렇듯 실제 경험하는 SWB의 차이 이외에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SWB 수준 역시 차이를 보였다. 중국에서는 크게 만족하지도 않고 크게 불만족하지도 않는 상태를 이상적인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스페인, 콜롬비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강한 만족감을 가진 것이 이상적인 상태라고 하였다(Diener & Suh, 1999).

또 다른 측면의 문화차 연구는 SWB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기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다. Eid와 Diener(2001)는 정서 경험자체의 빈도수와 강도가 개인주의 국가와 집단주의 국가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정서를 SWB 평가에 이용하는 정

도도 달랐는데 개인주의적 서양인들은 자신의 정서를 SWB평가의 기준으로 삼았으나 집단주의적 동아시아인들은 규범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Suh, Diener, Oishi, & Triandis, 1998).

문화차와 관련된 또 하나의 연구 분야는 행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해 문화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각의 차이에 대한 연구이다. Minami (1971)는 일본인들은 행복에 대해 망설임이나 주저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것은 음과 양의 개념과 같이 행복과 불행은 같은 근원에서 발생하여 분리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이규태, 1992; Kitayama & Markus, 2000; Lu, in press). 문화차와 관련된 연구에서 이 연구 분야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화에 따라 행복이란 개념 자체에 많은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가 궁극적으로 표면적인 문화차를 야기 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표면상 드러나는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문화에 따른 신념체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심리학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인의 SWB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 자체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 서양 중심적 접근으로 한국인의 행복과 SWB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과 더불어, 한국 고유의 행복관에 대해서도 고찰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동양 전통적 개념인 '복'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복(福) 개념

'복'의 사전적 정의는 1.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 좋은 운수 2. 좋은 운수로 얻게 되는 기회나 몫이다. 즉, 복은 동양에서의 이상향적인 상태를 칭하는 어휘이다.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관습인 것처럼 동양에서 복은 생활과 밀접한 보편적인 개념이다. 자연송배나 샤머니즘 등의 형태로 유지되어온 민간신앙에서도 그 목적은 복을 기원하는 데 있었다. 이후 유교·불교 등의 종교가 유입되어 이들과 융합함에 따라 복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는데 특히 규범과 국가의 통치체제로서 역할을 한 유교에서는 복의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 철학서인 상서의 통속편에는 바람직한 이상향을 갖춘 복 받은 사람의 다섯가지 요소를 수(壽), 부(富),

귀(貴다), 강녕(康寧), 자손중다(子孫衆多)로 제시하였다.

이렇듯 현재 한국인의 믿음체계에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복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상향이란 점에서 서양의 행복과 공통점을 지닌다(김인회, 1987). 그러나 복은 주체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나 정해진 요소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행복과 다소 분별되는 특징이 있다(최정호, 198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적인 접근방식으로 주관적 안녕감과 연관된 복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연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행복과 복에 대한 시발적인 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한국내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주관적 안녕감에 관련된 연구(김명소·김혜원·한영석·임지영, 2003)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신념체계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서구적인 행복이란 개념이 유입되기 전에 오랫동안 우리 문화에 친숙해 왔던 복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떤 한국인이 행복하거나 복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대담보다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과 복은 어떤 것일까?’하는 의문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였다. 두 개의 질문은 유사하나 현재 한국에서 복과 행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후자의 질문이 적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과 복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 고찰해보고 나이와 집단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점을 보는지 살펴보도록 하였다. 또한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복받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에 관해 알아보아 한국에서 궁극적으로 추구되는 가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후 연구 (2)에서는 각각 행복과 복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이때 구체적으로 행복 추구자와 복 추구자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3)에서는 행복을 예측할 때 개인 내적인 요소와 외부적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행복을 결정할지 예측해 보았다.

연구 (1)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동양인들에게는 서양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 이외에 복이라는 또 다른 개념이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 (1)에서는 행복과 구분되는 복이라는 개념의 존재여부에 대해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인 2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 연구를 통하여 행복과 복의 구성요소일 가능성이 있는 개념들을 수집하였다. 이 예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설문을 작성하여 한국의 20대에서 60대 성인 남녀가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의 특징과 복받은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더불어, 행복한 사람과 복받은 사람 중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방법

연구대상

심리학 교양 수업 및 전공 수업을 듣는 대학생 135명과 나이가 30세 이상인 학부생의 가족 129명이 설문에 응하여, 총 254명이 본 설문문에 참가하였다. 그 중 미응답 문항이 있는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결과에 반영된 최종 참가자의 수는 234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35세이고, 남녀 수는 각각 88명과 146명이었다.

설문내용 및 절차

본설문은 예비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행복과 복의 특징이 될 수 있는 23개 개념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표 1 참고). 설문의 첫 번째 질문은 제시된 23개의 단어 중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표현하는 단어 5가지를 고르는 것이었고, 다음 문제는 동일한 23개의 단어 중 복받은 사람의 특징을 표현하는 단어 5가지를 고르는 것이었다. 이어 설문참가자는 자신이 행복한 사람과 복받은 사람 중 어떤 삶을 선호하는지 선택하였다. 설문 응답이 모두 끝난 후 나이와 성별 및 종교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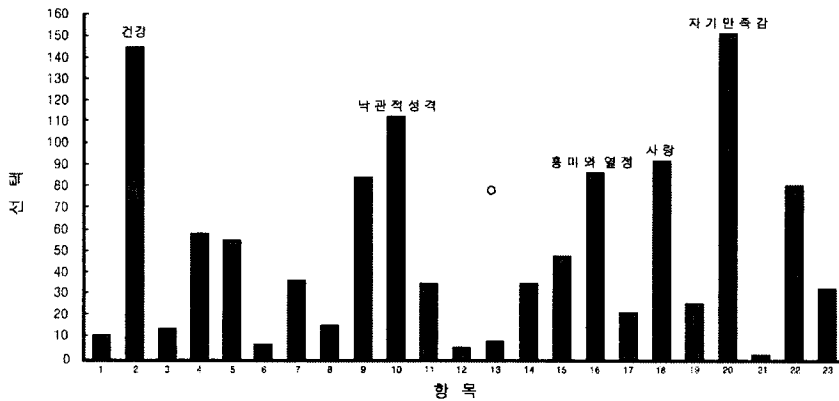
표 1. 행복/ 복 특징 선택 보기

보	기
장수, 건강, 명예, 돈, 사회적 안정, 집안배경, 부모, 운, 친구·애인·배우자, 낙관적 성격, 직업, 좋은 국가, 외모, 종교, 안정감, 흥미와 열정, 여가시간, 사랑, 자유, 자기 만족감, 인내심, 삶의 목표, 자기조절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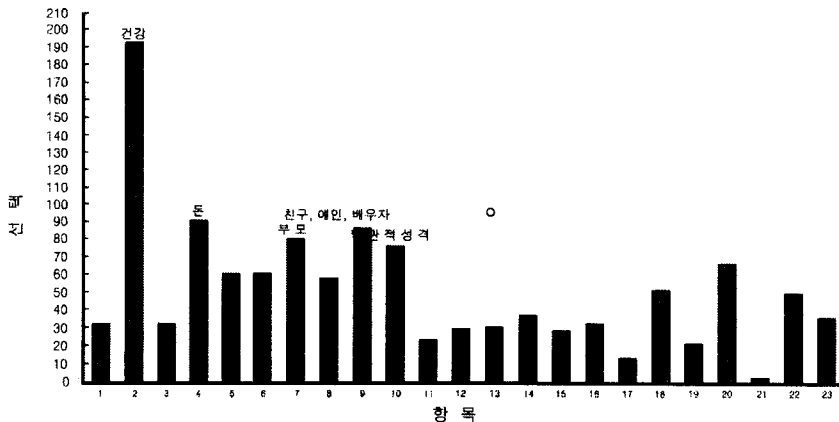
결 과

행복한 사람의 특징과 복받은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를 각각 5개씩 복수로 고르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빈도수가 높은 특징 5가지 중심으로 살펴보면 행복한 사람의 특징으로 '자기 만족감(152명)', '건강(146명)', '낙관적 성격(113명)', '사랑(93명)', '흥미와 열정(87명)' 등을 선택하였고, 복받은 사람의 특징으로는 '건강(193명)', '돈(90명)', '친구·애인·배우자(85명)', '부모(79명)', '낙관적 성격(74명)' 등을 선택하였다(그림 1). 이

중 '건강'과 '낙관적 성격'은 공통적 특징으로 나타났으나, '건강'은 복받은 사람의 특징으로 더 두드러졌고, '낙관적 성격'의 경우 행복의 특징으로 더 많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외에, '자기만족감', '흥미와 열정', '사랑'과 같이 정서적으로 좋은 상태를 행복한 사람의 특징으로, '돈', '부모', '친구·애인·배우자'와 같은 유리한 외적 조건을 복받은 사람의 특징으로 선택하였다. 즉, 행복은 내적으로 긍정적인 상태, 복은 외적으로 긍정적인 상



(a) 행복한 사람의 특징



(b) 복받은 사람의 특징

범례 : 1=장수, 2=건강, 3=명예, 4=돈, 5=사회적 안정, 6=집안배경, 7=부모, 8=운, 9=친구·애인·배우자, 10=낙관적 성격, 11=직업, 12=좋은 국가, 13=외모, 14=종교, 15=안정감, 16=흥미와 열정, 17=여가시간, 18=사랑, 19=자유, 20=자기 만족감, 21=인내심, 22=삶의 목표, 23=자기조절 능력

그림 1. 전체 연구 대상자가 뽑은 행복한 사람의 특징과 복받은 사람의 특징

표 2. 나이에 따른 행복한 사람과 복받은 사람의 특징 차이

빈도순	구분	청년층(19-29세)			중장년층(30-77세)			
		행	복	복	행	복	복	
1	자기만족감	15%	건강	15%	건강	15%	건강	18%
2	낙관적 성격	12%	친구·애인·배우자	8%	자기만족감	11%	돈	8%
3	흥미 열정	10%	낙관적 성격	8%	친구·애인·배우자	8%	부모	8%
4	건강	10%	자기만족감	7%	낙관적 성격	8%	사회적 인정	6%
5	사랑	8%	돈	7%	사랑	8%	친구·애인·배우자	6%

태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나이에 따라 행복/ 복 특징 추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중간값과 인원을 고려하여 19세에서 29세 사이 119명을 청년층, 30세에서 77사이 115명을 중장년층으로 나누어 집단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집단별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을 순서대로 정리해 본 결과 설문 응답자의 나이에 따라 행복한 사람과 복받은 사람의 특징 추출 경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행복의 특징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이 청년층에서는 '자기 만족감'인데 반해, 중장년층에서는 '건강'이었다. 그리고 복의 특징에 대해 청년층의 많은 사람들은 '낙관적 성격'을 선택하였으나 중장년층은 이보다 '부모', '사회적 인정'을 선택함을 알 수 있다. 즉,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행복을 긍정적인 내적상태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지배적이고, 중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복을 긍정적인 외적상태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컸다.

본인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혹은 복받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234명 중 195명(83.3%)은 행복한 삶을 선택했고, 39명(16.6%)은 복받은 삶을 선택했다. 이 질문과 행복과 복의 특징 추출을 연관시켜 알아본 결과, 행

복 추구자와 복 추구자는 행복과 복에 대해 각기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과 같이 빈도순으로 정리해 보면,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복 추구자들은 복받은 사람의 특징을 선택할 때 4번째 높은 빈도로 '집안배경'을 꼽았으나, 행복 추구자들에게 '집안배경'은 8번째로 꼽혔다. 또, 복받은 사람의 특징으로 '돈'을 선택한 비율도 행복 추구자(7%)와 복 추구자(11%) 간에 차이가 있었다.

종합적으로, 한국인들은 행복과 복을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긍정적인 내적 상태로, 복받은 사람의 특징을 긍정적인 외적 상태로 보는 공통점도 있지만, 구분점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서양의 행복과는 다른 동양 고유의 복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 (2)

연구 (1)에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행복한 삶 보다 복받은 삶을 살기 원하는 39명(전체의 약 16.6%)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설문참가자들은 아마도 동양문화권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집단이기 때

표 3. 행복한 삶을 원하는 사람과 복받은 삶을 원하는 사람이 각각 생각하는 행복과 복의 특징

빈도순	구분	행복 추구 집단			복 추구 집단			
		행	복	복	행	복	복	
1	건강	13%	건강	17%	건강	12%	건강	15%
2	자기만족감	13%	친구·애인·배우자	8%	낙관적 성격	12%	돈	11%
3	낙관적 성격	9%	부모	7%	자기만족감	12%	친구·애인·배우자	6%
4	흥미열정	8%	돈	7%	사랑	10%	집안 배경	6%
5	사랑	8%	낙관적 성격	6%	흥미 열정	6%	낙관적 성격	3%

표 4. 행복결정자에 대한 응답과 행복/복 추구 집단의 교차분석 결과

문항	구분	빈도	행복 추구 집단	복 추구 집단	전체	χ^2	Sig.
행복은 누구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가?	운명	빈도(명)	4	4	8	20.976	.001
		백분율(%)	2.0	10.2	3.4		
	종교	빈도(명)	11	9	20		
		백분율(%)	5.6	23.0	8.5		
	부모	빈도(명)	3	0	3		
		백분율(%)	1.5	0	1.2		
	애인	빈도(명)	2	0	2		
		백분율(%)	1.0	0	0.8		
	자기 자신	빈도(명)	168	25	193		
		백분율(%)	86.1	64.1	82.4		
	조건	빈도(명)	7	1	8		
		백분율(%)	3.5	2.5	3.4		

문이다. 이에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복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행복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행복의 결정자와 외부적 영향력, 그리고 행복과 불행과의 관계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행복 개념에 대한 조사는 사람들이 왜 행복 또는 복을 추구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행복 또는 복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방법

연구 대상

연구 1과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내용 및 절차

복받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첫 번째 질문으로 행복은 누구에 의해 결정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운명, 종교적 절대자, 부모, 친구·애인·배우자, 자식, 자신, 가족 외 타인, 사회적 조건’을 보기로 제시하였으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 외부적 조건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그 비율을 기입하게 하였다. 세 번째로, 행복과 불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행복과 불행은 별개의 것인지

또는 함께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고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연구 (1)에서 알아보았던 행복 추구 집단과 복 추구 집단 두 집단이 연구 (2)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어떠한 차이를 보였는지 알아보았다.

결과

행복이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2.4%가 ‘자기 자신’에 의해서라고 답하였다. 두 번째로, 행복의 결정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영향력과 외부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게 하였을 때,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자기내부 : 외부영향의 비율을 6.2 : 3.8로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복과 불행이 함께하는지 혹은 별개인지에 대한 세 번째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70.9%는 행복과 불행이 함께하고, 29.1%는 행복과 불행이 별개라고 답하였다.

그렇다면, 설문응답자가 행복 추구자인지 복 추구자인지를 고려할 때 이 결과가 달라질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행복/복 추구하고 행복의 결정자에 대한 생각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5)=20.976, p<.05$ (표 4). 행복 추구자들의 경우 행복의 결정자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자기 자신’이라고 응답하였으나(86.1%), 복 추구자들의 경우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은 전체의 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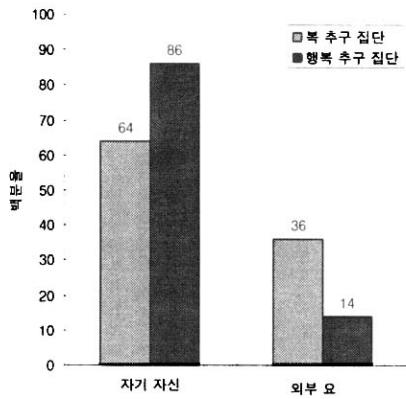


그림 2. 행복 결정에 있어 福 추구 집단과 행복추구 집단간 자기 자신과 외부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 차이

정도였고, 대신 ‘운명’ 또는 ‘종교적 절대자’ 등 외부적 요인을 행복의 결정자로 선택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35.8%). 즉, 행복 추구자는 福 추구자에 비해 행복이 자기 자신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반면 福 추구자는 행복 추구자에 비해 행복이 자기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福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비해 행복에 대해 수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자기 자신과 외부적 요인이 각각 어느 정도 비율로 행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답하게 한 두 번째 문제의 응답은 두 비율의 합이 총 10이 되게 변환한 후 분석하였다. 독립표본 t-test로 집단간 평균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행복 추구 집단과 福 추구 집단은 행복 결정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232)=2.161, p<.05$. 두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행복 추구 집단 ($M=6.31, SD=1.29$)은 福 추구집단($M=5.82, SD=1.27$)에 비해서 행복 결정에 대한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더 크게 생각하였다(그림 2). 즉, 행복 추구 집단은 福 추구 집단에 비해 자기 자신이 행복의 결정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福 추구자는 행복에 대해 수동적이라는 첫 번째 질문의 응답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복과 불행이 별개의 것인지 함께하는 것인지에 대해 교차 분석한 결과 행복 선호 집단과 福 선호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chi^2(1)=.899,$

$p>.05$. 바꾸어 말하면, 행복과 福 선호에 상관없이 대다수 설문 응답자들은 ‘행복과 불행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166명, 70.9%). 이것은 동양의 전화위복(轉禍爲福) 사상이 행복에 반영된 듯 생각되며 Minami(1971)와 Lu(1998)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구 (3)

앞의 연구들을 통해 볼 때 행복 추구 집단은 내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福 추구 집단은 외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행복 추구 집단과 福 추구 집단은 행복의 특징 및 결정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과 관련된 다른 생각들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에 연구 (3)에서는 행복과 관련된 주요 주제 중 하나인 행복의 예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람들은 현재에는 긍정적 내적상태를 갖춘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미래에는 긍정적 외적 조건을 갖춘 사람을 더 행복할 것이라 여길지 모른다. 혹은 그 반대도 가능하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참가자에게 외적조건을 갖춘 사람과 내적 상태를 갖춘 사람의 현재 행복 정도와 미래 행복 정도를 각각 예측하게 하였다. 이것은 행복의 예측에 어떤 요인이 판단 근거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 때 행복의 예측은 행복의 결정자와 관련 있을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자신이 행복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긍정적 내적 상태(예를 들어, 열정, 흥미, 사랑 등)를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할 것으로 볼 것이다. 반면, 행복을 결정하는데 자신보다 외적인 것이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적조건(예를 들어, 부모, 집안 배경 등)이 잘 갖추어진 사람을 더 행복하다고 볼 수 있다(가설 1).

방 법

설문 대상

연구 (1), (2)와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내용 및 절차

긍정적 외적조건을 갖춘 인물과 긍정적 내적 상태를 갖춘 두 인물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외적조건을 갖춘 인물의 특징은 좋은 집안, 부모님, 많은 돈, 좋은 직업이고, 내적 상태를 갖춘 인물의 특징은 좋은 성격, 많은 친구들, 삶에 대한 흥미로 하였다. 두 시나리오의 대비를 위하여 내적 상태를 갖춘 인물은 외적조건은 좋지 않아 경제사정이 어렵고, 부모가 없으며,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것으로 묘사하였고, 외적조건을 갖춘 인물은 내적 상태는 좋지 않아 스트레스가 많고, 삶의 흥미가 결여된 것으로 묘사하였다.

설문대상자는 시나리오를 읽고 현재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7점 Likert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그런 후, 5년 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표시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나이 성별 종교 등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행복결정에 있어 자신의 영향력 비율은 앞서 실시한 연구 (1)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결 과

설문응답자들은 내적 상태가 좋은 사람의 행복 정도를 외적 상태가 좋은 사람에 비해 현재와 미래 모두 높게 예측하는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는 긍정적 내적 상태를 행복의 요소로 꼽은 연구 (1)의 결과와 그 방향이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행복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신의 영향력 비율과 행복 예측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189, p<.001$. 설문응답자들은 행복 결정에 자기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긍정적 내적상태의 사람이 더 행복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내적상태 시나리오의 현재와 미래, 긍정적 외적 조건 시나리오의 현재와 미래를 나누어 행복 예측과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복을 결정하는데 자기영향력의 비율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내적 상태를 갖춘 사람의 미래가 더 행복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r=.258, p<.001$.

연구(3)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설문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긍정적 내적 상태를 갖춘 사람을 행복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내적 상태를 더 가변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행복의 결정에 있어 자기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크게 느끼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즉, 행복 결정에 자기 자신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긍정적 내적 상태를 행복과 더욱 밀접한 요소로 생각하였고, 미래에 더욱 행복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논 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현재 행복과 복에 대해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 일치된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건강'과 '낙관적 성격'이 행복과 복의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났다. 구별되는 행복의 특징으로는 개인 내적인 긍정적 정서상태가, 복의 특징으로는 사회적이고 객관적인 요소가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행복과 불행은 함께 한다'는 동양의 순환론적 관점을 보이는 명제에 동의하였다.

이렇듯 행복과 복에 대해 한국인들이 일치점을 공유하고 있지만 행복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선호는 나이와 행복의 개념자체의 차에 따라 개인차를 보인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연령대에 따라 행복과 복에 대한 견해가 달랐다. 청년층의 경우 복이란 개념에도 자기만족감, 낙관적 성격과 같은 개인 내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중장년층의 경우 복은 철저히 사회적 인정, 부모와 같이 외부적인 요소가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같은 행복과 복이라는 동일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연령대에 따라 그 개념을 구성하는 의미가 다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나 그 중 하나는 한국의 급변하는 역사와 맞물려 유교적이고 전통적인 경험을 하며 자란 중장년층과 비교적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청년층간의 문화 경험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에서 개인차가 나타났다. 복을 추구하는 집단의 경우, 행복을 추구하는 집단에 비해 행복이 자신이 아닌 외부로부터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 또한 그들은 행복 추구자에 비해 자신의 의지로 행복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도 낮게 평가 했다. 이러한 구분된 특징을 가지는 복 추구자는 전체의 약 16%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집단이 전체의 약 84%를 차지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차이에도 불구하고 복 추구자에 대한 특징 파악은 여전히 중요하다. 최상진 외 (1999)가 언급하듯이 동양 문화를 대상으로 한 비교문화적 심리학이 적실성과 학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화 고유 개념에 대한 정제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복 추구자 뿐만 아니라 복 추구자에 대한 특징 파악은 비교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세 번째로 타인의 행복을 예측할 때 전체적으로 긍정적 내적상태를 가진 사람을 행복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양상이 행복에 대한 자기영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즉, 자기 자신이 행복에 대해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적조건을 행복과 더 관련된 요소로서 생각하였고, 미래에 더욱 행복해 질 것이라 예측하였다.

결과적으로, 행복과 복에 대한 추구는 본 연구에서 알아보았던 요인들-행복의 결정자, 자신의 영향력, 연령-등과 종합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떠한 가지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과 복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 개념과 복 개념의 일치점과 변별점을 구분했고, 그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밝혀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술적 연구이므로, 요인들간의 구체적인 관계와 이와 관련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행복 구성 요인이 지니는 주관적 중요성 차이, 다른 행복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성 등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이규태 (1992). 한국인의 정신문화. 신원문화사.
 김인회 (1987). 한국무속사상연구. 집문당.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2).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2(2), 1-33.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궁호, 이수원 (1999). 동양심리학. 지식산업사.
 최정호 (1983). 복에 관한 연구. 진영사.
 Argyle, M. (2001). *The psychology of happiness*. New York : Routledge.
 Bruner, J. (1990). *Acts of meaning*.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Diener, E., & Fujita, F. (1995). Resources, personal strivings, and subjective well-being : A nomothetic and idiographic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26-935.
 Diener, E., & Suh, E. M., Smith, H., & Shao, L. (1995). National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 Why do they occur? *Social Indicators Research* 34, 7-32.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Diener, E., & Suh, E. M. (1999). National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 434-450). New York : Russell Sage.
 Diener, E., & Seligman, M. E. P. (2004). Beyond money : Toward an economy of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2), 1-31.
 Eid, M., & Diener, E. (2001). Norms for experiencing emotions in different cultures : Inter- and Intra-na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869-885.
 Kitayama, S., & Markus, H. R. (2000).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the realization of sympathy : Cultural patterns of self, social relations, and well-being.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 113-161). Cambridge, MA : MIT Press.
 Lu. L. (1998). The meaning, measure, and correlates of

- happiness among Chinese peopl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Science Council : Part C* 8, pp.115-137.
- Lu, L. & Gilmour, R. (in press). Culture and conceptions of happiness : Individual oriented and social oriente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 Minami, H. (1971). *Psychology of the Japanese People*. Tokyo : University of Tokyo Press.
- Suh, E., Diener, E., Oishi, S., & Triandis, H. C.(1998). The shifting basis of life satisfaction judgments across cultures : Emotions versus nor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482-493.
- Wilson. W. (1967).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67, 294-306.

Happiness and the Eastern Concept of Bok : Similarities and Distinctions

Jisun Lee Minyoung Kim Eunkook Suh
Yonsei University

The notion of "happiness" was compared with a conceptually overlapping Eastern concept of "bok" among 234 Korean college students and adults. Respondents nominated health and optimistic personality as essential conditions for both happiness and bok. However, distinctions were also found between the two concepts. Whereas internal attributes such as self-satisfaction was emphasized in characterizing a happy person, more socially-oriented features (e.g., high social status) were strongly linked with a person blessed with bok. Also, people who personally preferred bok over happiness(16% of the sample) were more likely to believe that happiness was ultimately determined by external, chance forces than by self-effort. Finally, those wh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ersonal effort in attaining happiness believed in the importance of having a positive inner state, and weighted this factor heavily in predictions of future happiness.

Key word : happiness, bok, subjective well-being, cultural difference

원고접수 : 2004년 9월 3일
심사통과 : 2004년 10월 5일